



보도자료

2013.10. 13(일)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 · 연천군)

(우) 487-800 경기도 포천시 구절초로 12(신읍동) 3층 Tel:031-533-0700 / Fax:031-533-0791
(우) 486-903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43 3층 Tel:031-832-8855 / Fax:031-832-8866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27호 Tel:02-784-1521 / Fax:02-788-0141

재외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확대해야

-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0개국
- 선진국, 특히 미국 미체결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둘러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 · 연천)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0개국이며, 이 중 미국(14개주)을 비롯한 13개국은 상호인정 협정이나 약정을 통해 체결한 국가이고, 117개국은 해당국 법률 등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현지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운전면허취득이 까다로운 선진국이나 우리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재외국민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미지역의 경우, 캐나다는 1998년부터 시작해 2011년에는 10개주 모두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0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현재 14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고, 36개주와 1개 자치구는 약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약정 체결률은 27%에 불과하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외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은 외국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불인정시 해당국 운전면허시험(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하므로 조기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외국민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과 편익 증진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뉴저지주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미국지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현황

< 미국지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현황 >

| | 미 국 주 명 |
|------------------------------|---|
| 상호 인정 (14개주) |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
| 상호 불인정 (36개주 및 1개 자치구) |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메인, 버몬트,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조리, 켄터키, 켄사스, 오하이오, 네브라스카,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알칸사, 미시시피, 캘리포니아, 유타주, 아이오밍,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몬태나,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 DC |